



코스피 역대 최고 상승률 기록

마이크로소프트·아마존 호실적에 AI 수익성 우려 완화
외국인, 사상 최대 규모 코스피 순매수

주요 지표 일간 변동

KOSPI	KOSDAQ	KOSPI200
6,595.45pt (+17.91%)	719.76pt (+11.63%)	1,046.81pt (+19.98%)
달러-원 환율	韓 10년물 국채 금리	S&P500 선물
1,431.50 원 (+13.5 원)	4.2490% (-6.2bp)	7,496.00pt (+0.31%)

참고: 발간 시각 기준
자료: KRX

주요 수급 동향

	KOSPI	KOSDAQ	KOSPI200 선물
개인	-82,739 억	-4,695 억	+713 억
외국인	+72,789 억	+1,732 억	-5,325 억
기관	+11,395 억	+2,967 억	+3,611 억

참고: 발간 시각 기준
자료: KRX

KEY DRIVER

- 금일 국내 증시는 AI 수익성 우려가 완화되면서 상승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아마존이 클라우드 성장세에 힘입어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주가가 급등했고, 반도체를 비롯한 AI 인프라 관련주도 동반 강세를 보였습니다. 레버리지 비중이 높았던 美 대형 헤지펀드의 청산으로 디레버리징이 마무리 국면에 들어섰다는 인식도 확산됐습니다. 장 초반부터 양시장에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된 가운데, 시총 상위 종목들이 상한가를 터치하거나 이에 근접하면서 코스피는 역사상 가장 높은 일일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이날 KOSPI는 17.91%, KOSDAQ은 11.63% 올랐습니다. KOSPI 거래대금은 약 48.9조 원, KOSDAQ은 약 5.4조원을 기록했습니다.(KRX 기준)
- 외국인은 KOSPI를 약 7.3조원 순매수했는데, 이는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외국인은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를 집중적으로 매수했고, SK이노베이션과 삼성물산 등을 매도했습니다. 기관은 KOSPI를 1.1조원 가까이 순매수했습니다. 기관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사들였고, 현대차와 셀트리온, KB금융 등을 매도했습니다.
- 대부분의 업종이 상승한 가운데, 주요 반도체 ETF들이 상한가를 기록하는 등 반도체 밸류체인 전반의 강세가 돋보였습니다. AI 인프라 투자 기대감에 전력기기 업종이 상승했습니다. 증권, 로봇, 건설주도 반등했습니다. 반면, 조정 국면에서 방어주 역할을 했던 통신, 음식료, 화장품 업종이 하락했습니다. 일부 바이오 업종도 약세를 보였습니다.
- 주요 종목 중에선 두산(+30.00%), SK하이닉스(+29.95%), 삼성전기(+29.92%)가 올랐고, 삼양식품(-6.03%), LG유플러스(-3.78%), 아모레퍼시픽(-2.99%)이 내렸습니다.

Compliance Note

본 조사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습니다. 본 조사자료는 당사의 동의 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형태로든 복제, 배포, 전송, 변경, 대여할 수 없습니다. 본 조사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 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자료에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이 정확하게 반영되었습니다.